

건강 칼럼

치료시기 중요한 척추관협착증, 고령·만성질환자 치료는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한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건강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신체 부위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화에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중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단연 인체의 중심이자 기둥이라 표현하는 척추가 대표적 일 것이다.



서 정 무
건주병원 병원장

척추는 체중을 부담하는 건 물론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과 마찰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허리통증을 누구나 느끼는 통증 정도로만 여기고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않곤 하는데, 만약 본인의 나이가 중년층이거나 고령층에 속한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 보길 권한다. 대표적인 노년층 척추질환으로 알려진 척추관협착증은 척추뼈 뒤로 지나가는 신경 다발들의 통

로 척추관에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면서 그 넓이가 좁아지고 신경이 눌려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 어떤 신경이 얼마나 압박받느냐에 따라 통증이 달라지는 척추관협착증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돼 50대 이상에 이르르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척추관협착증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물론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게 만든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이내 곧 터질 것처럼 아파서 점점 보행 거리를 짧아지게 되는데, 이같은 증상은 현대인들의 고질

병인 허리디스크와 비슷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 달리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완화된다는 경향이 있고 뒤로 굽히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진행성 질환이란 특징을 가진 척추관협착증은 무엇보다 치료시기가 중요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받는다 해도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있고 아예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고령층, 만성질환자다.

그렇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걸까. 의학기술 발달로 최근에는 나이가 너무 많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수술이 어려운 경우 항방향 척추 내시경을 고려한다.

이는 약 0.5cm 정도의 작은 구멍 2개를 만든 뒤 특수하게 제작된 내시경을 삽입해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 수술법이다.

부작용, 통증, 출혈 걱정 등이 적은 편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고령층, 만성질환 환자들 혹은 조기 회복이 필요한 척추질환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관찰과 동시에 치료가 이뤄져야하기에 그만큼 고난이도의 치료법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지, 실력과 노하우를 갖췄는지, 수술을 진행할 의료기관의 수술 시스템은 체계적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권한다.

사설

전북 향토 기업인 김명관씨

전북의 향토 기업인 김명관씨(82)는 사회 환원에 앞장서는 기업인이다. 전북 남원시 운봉면 출신인 김명관 회장은 전주 지역에서 호남가스, 제일예식장, 천경산업 등 각종 사업을 했다. 그러면서 국제레이온스 309-F 지구 재무국장, 부총재 등과 366-C지구 역대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전라북도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UPPF전북발전협의회회장 등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도 명관장학회 운영은 물론 18억 원 상당의 제일예식장 기부 등 활발한 사회사업과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7년 자신이 장로로 몸담고 있는 가정교회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제일예식장을 기부하여 교회 신축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명관 회장은 전주향토주부회 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9년 7월 8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북여

성단체협의회 주최 '제10회 전북여성합창대회'에서 '훌륭한 남성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는 총 19개 팀이 참가했다. 실버팀과 청·장년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대회는 실버 세대들의 가슴 뭉클한 무대가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선문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선문대는 충남 아산시 당정면에 위치한 학교이다.

김 회장은 이날 선문대 후기 졸업식에서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의 사명에 깊이 공감하고,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적극 후원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에 앞서 김명관 회장은 학교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1억 원의 발전 기금을 선문대에 전달했다. 그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해 11월 '네 나중은 정대하리라' 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생겨난 말이 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팔며 급락세가 이어지자 이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빗대어 표현한 신조어다. 실제 거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2020년 3월 22일 거래일 중 단 하루(3월 4일)를 제외한 21일 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조5550억 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11조 1869억 원을 순매수해 사실상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았다. 동학개미운동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를 막아내 주식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인정받고 있다.

증시 활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난해 증권사들은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왔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거래대금, 신

용안고 등 브로커리지 수익성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들어 지속적인 하락장이 연출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크게 감소했다. 증권사들의 실적 성장세도 꺾일 것이라 전망이 제기됐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함께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는 더욱 실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관측이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천371억원으로 추경됐다. 이는 전분기(3천 972억원) 대비 40.31% 감소한 수치다.

삼성증권(-43.40%), NH투자증권(-24.43%), 키움증권(-26.61%) 등도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외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1세 아이 숨지게 한 경찰 발포에 항의하는 시위대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손팻말과 꽃을 들고 트리니다드 경찰이 이주민 선박에 발포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 앞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해안경비대는 지난 5일 베네수엘라 탈출 이주민이 타고 있던 소형 선박을 단속하던 중 발포해 한 살 아기가 숨지고 아이 열마가 다쳤다.

'올해 송라이터' 수상 소감 말하는 에드 시런



에드 시런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O2 아레나에서 열린 2022 브릿 어워드에서 '올해의 송라이터(song writer)'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브릿 어워드는 1977년 시작된 영국 음반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